

2011년 3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1,078조회)

이야기 들려주기  
話を聞かせる

아이들에게  
子供たちに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話を聞かせようとすれば

먼저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まず話を分からなければならない

이야기를 통해서 기죽은 아이에게는 용기를 불어넣고,  
話を通じてひるんだ子供には勇気を吹き込んで

슬픔에 빠진 아이에게는 꿈을 심어 줄 수 있다.  
悲しみに陥った子供には夢を植え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

이래서 이야기는 약도 되고 매도 된다.  
こうして話は薬にもなって、実にもなる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야기가 약이라면  
力と勇気を吹き込んでくれる話が薬なら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는 매가 된다.  
間違いを気づかせる話は実になる

그저 한바탕 웃고 즐기는 이야기는  
ただひとしきり笑って楽しい話は

군것질거리쯤 되겠지.  
間食くらいにはなるだろう

- 서정오의《옛이야기 들려주기》중에서 -  
- ソ・ジャンオの〈昔話を聞かせる〉より -

\* 이야기가 곧 삶입니다.  
\* 話はまさに人生です

역사이자 꿈이고 예술입니다.  
歴史で、夢で、芸術です

모든 지혜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全ての知恵が話の中に詰まっています

이야기가 풍성한 사람이 인생도 풍요롭습니다.  
話が豊富な人が人生も豊かです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面白い話を子供立ちに聞かせることは

먼저 산 사람, 나이든 사람들이 해야 할  
さきに生きた人、年をとった人々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重要な使命でもあります。

들려-주다

1. [타동사] 聞かせる。

불어-넣다

1. [타동사] 吹き入れる; 吹き込む。

2. [타동사] 刺激したり影響をおよぼす; 吹き込む。

심:다

1. [타동사] 植える。

이래서2

1. [약어] 이리하여서의縮約形。

2. [약어] こうして; こんなにして。

그저

1. [부사] ただ; ひたすら; ひとすじに。

2. [부사] いつもの通りに; 何の変てつもなく; (ずば抜けたこともなく)まあまあ; 先ず先ず; (大したもの...

한-바탕

1. [부사] ひとしきり; 一幕。

군:것-질

1. [명사·하다형 자동사] 間食; おやつ; 買い食い。

2. [명사·하다형 자동사] 女あそびをすることの俗っぽい語。

풍성 [豊盛]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豊かで多いこと; ふんだんにあること; 豊富。

2011년 3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1,205조회)

말의 힘, 글의 힘  
言葉の力、文字の力

내 입에서 나와  
私の口からでて

상대의 귀로 흘러들어 가는 말 한마디가  
相手の耳に流れていく言葉の一つ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를  
生きていながら、どれだけたくさんの役割をしてきたのかを

우리는 항상 새겨야 한다. 말을 내뱉는 것은 쉽고  
私たちはいつも刻まなければならない。言葉を放つことはたやすく

순식간이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평생토록  
瞬間だが、その言葉に対する責任は一生

가져가야 한다. 말이란게 이토록 어렵고  
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言葉というこがこのように難しく

중요하다. 말이 주는 놀라운 힘을 믿고,  
重要だ。言葉がもたらす驚くべき力を信じ

말을 잘 하자.  
言葉をよく使おう

- 고도원의《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중에서-  
- コ・ドウオンの〈愛します。ありがとう〉より -

\* 말한 대로 거두고,  
\* 話したままに取り入れて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話したまま成り立ちます

말이 곧 그 사람이고 에너지입니다.  
言葉がまさにその人であり、エネルギーです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愛するという言葉一つがくれる力は驚きます

글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을 행사합니다.  
文字はさらにたくさんの人に大きな力を行います

그러므로 말을 책임있게 잘 해야 하고  
それゆえ言葉を責任もってちゃんとしなければならず

글은 더 잘 써야 합니다.  
文字はさらによく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

새기다1

1. [타동사] 刻む; 彫る; 彫りつける; 彫り込む; 切り付ける。
2. [타동사] 刻みつける; 記す; 銘じる。

내:-뱉다

1. [타동사] 吐き出す。
2. [타동사] 言い捨てる; 言い放つ。

순식-간 [瞬息間]

1. [명사] またたく間。

거두다

1. [타동사] 取り入れる; 回収する; 徴収する。
2. [타동사] 育てる; 面倒を見る; 養う。

행사 [行使]

1. [명사·하다형 타동사] 行使; 権利·権力などを実際に用いること。

2011년 3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1,248조회)

가까이 있는 것들  
近くにあること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私たちは近くにあることが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美しく、ものすごいということを気づいておどろく。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近いことが遠いことを説明する。一滴の水は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小さい海だ。ひとりの人は自然全体と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連結されている。それゆえ平凡なことの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価値を認識すれば、今までわからなかった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色々な悟りを得るだろう。

- 랄프 왈도 에머슨의《스스로 행복한 사람》중에서 -  
- ラルフ・ワルド・エマーソンの〈自ら幸せな人〉より -

\* 사랑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 愛もところにありません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一番近くにいる人の間に愛があります

꿈과 희망도 저멀리 강 건너에 있지 않습니다.  
夢と希望もはるか遠くの川の向こう側にはありません

가장 가까운 내 발 밑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一番近い私の足元にその種があります。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 안에서  
一番日常的で、一番平凡なことの中で

내 모든 운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私の全ての運命の方向が決定されます。

가까운 것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近いことに密着されています。

경이-롭다 [驚異-]

1. [형용사·ㄷ 불규칙 활용] 驚くべきだ;ものすごい。  
방울2

1. [명사] 玉のようなかたまりになった液体。

2. [명사] …滴。

평범 [平凡]

20110309.txt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平凡; 並み; 月並み。

멀:리

1. [부사] 遠く; はるかに。

건:너

1. [명사] 向こう側; あちら側。

Ralph Waldo Emerson

2011년 3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2,394조회)

원초적 행복  
原始的幸福

먹고 자고  
食べて、寝て

싸는 것은 삶의 기본이다.  
包むことが人生の基本だ

그러니 이를 잘할 때 오는 행복감은  
だから、これをちゃんとするときにくる幸福感は

다른 어떤 것보다 '원초적인 행복'일 것이다.  
他のどれより'原始的幸福'であるのだ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에서 오는 행복은  
自然な生理的作用からくる幸福は

모든 행복의 근간이 된다. 그러니 원초적으로  
全ての幸せの根幹になる。だから、原始的で

행복하다면 삶에서 어떤 불행을 겪더라도  
幸せなら、人生でどんな不幸を経験しても

쉽게 치유되지 않겠나.  
簡単に癒されないか

- 김광화의《피어라, 남자》중에서 -  
- キム・クワンファの〈咲け、男〉より -

\* 먹고 자는 것, 중요합니다.  
\* 食べて寝ること、重要です

모든 행복의 원초적 출발점입니다.  
全ての幸せの原始的出発点です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한걸음 더 나가  
しかし、人が人らしいためには、もう一歩さらに出て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먹고 자는가?",  
このように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私はなぜ食べて寝るのか?"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먹고 자는가?"  
"私は果たして何のために食べて寝るのか?"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わたしだけでなく、他の人の幸せまでも

함께 생각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共に考えながら歩いていく人生、それが

개인의 원초적 행복을 넘어 공동의  
個人の原始的幸福をこえて、共同の

20110310.txt

성숙된 행복으로 가는  
成熟された幸福に行く

출발점입니다.  
出発点です。

げん-し [原始]

1. [명사] 처음. 원초.
2. [명사] 자연 그대로임. 미개함.



2011년 3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2,718조회)

직감  
直感

인간의 직감을  
人間の直感を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甘く見てはいけない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日常生活を考えればわかるだろうが

인간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人間は目の前で起こることを一つ一つ

이성과 논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理性と論理性だけで判断しない

하다못해 라면을 먹을 때도 '맛있다!', '끝내준다!',  
せめてラーメンを食べるときも'美味しい!','終える!'

'훌륭하다' 정도면 충분하다. '이 가게, 지저분하지만  
'立派だ'くらいで充分だ。'この店ごちゃごちゃしてるけど'

맛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으로 충분한 것이다.  
味は美味しいみたい'は直感で充分なのだ

- 히라노 히데노리의《감동예찬》중에서 -  
- 平野秀典の<感動礼賛>より -

\* 사람도 한눈으로 알아봅니다.  
\* 人も一目でわかります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彼が私を好きなのか、嫌いなのか...

생각 이전에 느낌으로, 느낌 이전에 직감으로...  
思う前に感じて、感じる前に直感で...

직감과 직감이 만나 소울메이트를 이루고  
直感と直感が出会いソウルメイトにいたり

직감에 감정이 더해져 사랑이 됩니다.  
直感に直感が募って愛になります

섬광 같은 한 순간의 직감 하나가  
選考のような直感一つが

사랑을 낳고 인생을 바꿉니다.  
愛を生み人生を変えます

하다-못해  
1. [부사] せめて。  
훌륭-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立派だ。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堂々として美しい。  
지저분-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取り散らかしている; 雑然としている; ごちゃごちゃし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汚らしい; むさくしい; 汚れている。
- つもの [募る]
1. [5단 활용 자동사] 더해지다. 격화하다. 심해지다. 【문어 4단 활용 동사】
  2. [5단 활용 타동사] 모으다. 모집하다. 【문어 4단 활용 동사】
- 섬광 [閃光]
1. [명사] 閃光; 瞬間的にきらめく光。

2011년 3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949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미라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ミラ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작은 것의 소중함  
小さなことの大切さ

내 것이 아닌 것을 보지 않게  
私のことではないことを見ないように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게  
私のことではないことを、欲しがらないように

내 것이 아닌 것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私のことではないことを、うらやましがらないようにして下さい

아주 작은 것에도  
とても小さなことにも

만족해하며 살 수 있게  
満足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발길에 차이는 작은 풀꽃도 사랑하게  
歩みの差は小さな野花も愛するように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小さなことの大切さを感謝しながら生きていけるようにして下さい

- 안숙현의《작은 것의 소중함》중에서 -  
- アン・ソッキョンの〈小さいことの大切さ〉より -

\* 내 것이 아닌 큰 것의 허황함을 바라지 말고  
\* 私のことではない大きなことの夢をつかむことを望まず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小さなことの大切さを感謝しながら生きることができることも

크나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大きな幸せ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앞으론 더욱 욕심을 부리지 않고  
これからは、さらに欲心を使わず

늘 감사하며 살고 싶네요.  
ずっと感謝しながら生きたいですね

탐-내다 [貪-]

1. [타동사] 欲しがる。

허황 [虛荒]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荒唐; 無稽; 話や考えによりどころがなく、とりとめのないことやそのさま。

크나-크다

1. [형용사] 極めて大きい; (ことが)重大だ; 大変だ。

부리다1

1. [타동사]働かす;働かせる;仕事をさせる;こき使う。
2. [타동사]使う;つかいこなす